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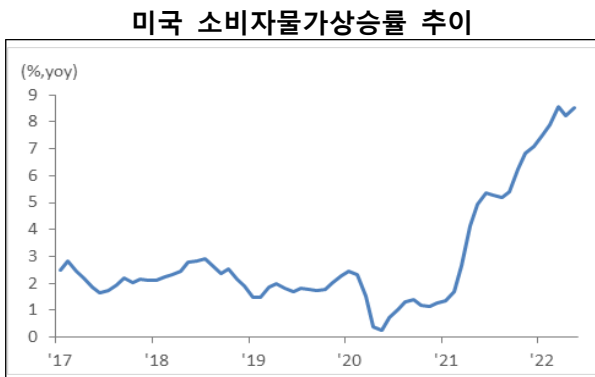
# 최근 미국 물가 추이와 '22.6월 FOMC 결과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윤 영 교 (yoonyk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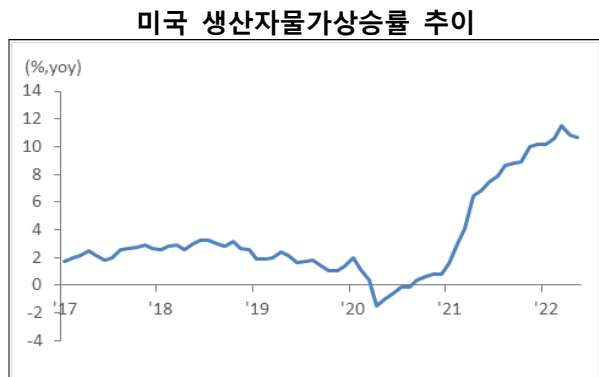
- ◆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편,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해 '22.3월부터 진행된 금리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
- ◆ 연준은 '22.6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고 향후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상승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제어에 집중하겠다는 의사 표명

## □ '22.5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년 래 최고치를 기록,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방침을 지지

- '22.5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.6% 상승하며 '81.12월(8.9%)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
  -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\*이 34.6%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견인
    - \* 차량용 가솔린 가격(48.7%)과 연료유(fuel oil) 가격(106.7%)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인
  - 주거비는 전년동월대비 5.5% 상승, 여타 품목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담 요인으로 작용
    - \* 미국은 자가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(임대료)을 주거비에 산입하는 형태를 채택해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(32.4%) 특징 존재(한국은 9.8%)
- 인플레이션 정점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생산자물가상승률\*이 '22.3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'21.3월 이후 진행된 금리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
  - \* 생산자물가(%yoy): 10.1('22.1월) → 10.4('22.2월) → 11.5('22.3월) → 10.9('22.4월) → 10.8('22.5월)
  -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구조



자료 : Refinitiv



자료 : Refinitiv

□ 연준은 '22.6월 FOMC를 통해 '94.11월 이후 처음으로 75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

-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'22.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강조
  - 고용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
    - \* 실업률(%): 3.5('20.1월) → 10.2('20.7월) → 6.7('20.12월) → 5.4('21.7월) → 3.9('21.12월) → 3.6('22.5월)
  - 팬데믹으로 시작된 수급 불균형과 높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3월과 5월 FOMC에 이어 유지
  - 특히 중국 경제봉쇄(lockdown)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 붕괴(disruption)를 악화(exacerbate)시킬 수 있음을 지적
-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·단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
  - 기준금리는 기존 0.75~1.00%에서 1.50~1.75%로 75bp 인상
  - 자산규모 축소는 5월 FOMC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진행\*
    - \* 국채는 매월 300억 달러, MBS는 매월 175억 달러씩 재투자를 중단하고, 그 규모를 3개월 내 각각 600억 달러 및 3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축소
- '22년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상향(1.9%→3.4%)하고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3월에 비해 하향 조정

연준의 '22년 및 '23년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 변화

구분	(%)							
	경제성장률		실업률		물가상승률		기준금리	
	'22년	'23년	'22년	'23년	'22년	'23년	'22년	'23년
'22.3월	2.8	2.2	3.5	3.5	4.3	2.7	1.9	2.7
'22.6월	1.7	1.7	3.7	3.9	5.2	2.6	3.4	3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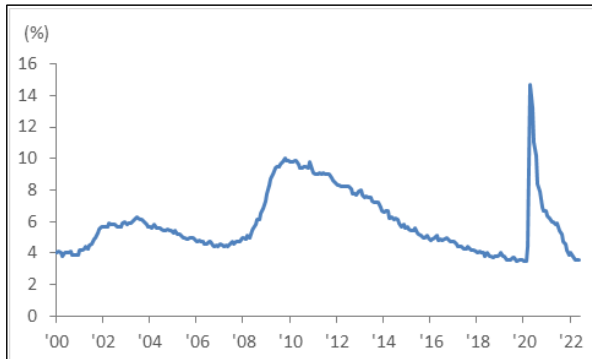
주 : 연준은 매년 3,6,9,12월 FOMC에서 경제지표 전망치 제시  
 자료 : 연방준비제도

□ 파월 의장은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를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겠다는 의지 표명

-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 방침

- 실업률은 50년 來 최저치이나 빈 일자리(채용공고건수)는 역사적 고점인 상황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, 금리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
-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한 정책 조치일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인상 속도는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발언
  -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다음 FOMC(7.27일 예정)에서도 50~75b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\*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제어에 대한 강한 의지 확인
  - \* From the prospective of today, either 50 or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(파월 의장 기자회견 中)

미국 실업률 추이



자료 : Refinitiv

미국 채용공고건수 및 임금상승률 추이



자료 : Refinitiv